

“대통령 증인 채택 후 불출석 형사처벌”

헌재 “헌법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운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별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별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일반론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별칙)는 지난 2011년 4월 5일 개정됐다. 1항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중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받아 22일에 있을 1차 준비기일에서 진행 절차와 세부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탈당 결정’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22일 열릴 준비절차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서 공개와 관련한 소송지휘권 행사방안과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의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

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배보운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요청을 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운천 의원, 새누리당 탈당 결정

새누리당 정운천(전주 을) 의원이 탈당하기로 했다. 21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35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집단 탈당을 결의했다.

탈당 시점은 오는 27일로 결정했다. 정운천 의원도 이날 집단 탈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친박계 중심 현 새누리당에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가로 8명의 윤리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며,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은 현 새누리당에서는 정복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이날 탈당 대열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광수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8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은.오프라인의 1,000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정감사 활동 평가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 의당 간사로 활약하며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과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개정을 발의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및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점을 지적해 복지시설의 관리체계와 평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동수당제도 도입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기조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임위인 만큼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이완영·이만희는 특검수사대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친박계 이만희·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두 의원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주권회의’에서 “이 문제는 그냥 위증교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한번 더 여느냐 안 여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와 탄핵소추 국조특위 등이 모든 것을 사실상 농단하려 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관여된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의 정체가 되는 검찰수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지도 모른다”고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완영 의원이 “스스로 간사직과 위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뉴시스

반기문 대선 출마 예고... 야3당 반응 엇갈려

민주당·정의당 ‘혹평’ ... 국민의당, 연대 가능성 열어놓으며 입당 ‘러브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1일 반 총장의 출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혹평한 반면, 국민의당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입당 ‘러브콜’을 보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 총장의 출마에 따른 제3지대 탄력성과 관련해 “정치 호사가들의 민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거론한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연합이 잘 되겠느냐. 한 당에서도 연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인데 적적 제3지대에 모인다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부터 제3지대라는

말은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반 총장의 출마설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이 검증할 것”, “북핵 해결 못한 유엔사무총장” 등 일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의당도 비판의 대열에 섰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반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눈에 필만한 업적이 없었다는 해외의 비판이나 불필요하게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두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라며 “반 총장이 이러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반 총장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환영하면서 국민의당 입당 후 경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이나 정운찬 총리와 같은 분들은 국정 경험이 풍부해서 그런 경험들을 국가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데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분이 박근혜 리더십에 국민이 배신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한국정치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정도라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근 반 총장 측근에게 새누리당,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에 대해 굉장한 흥미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당에서 반 총장이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정운찬 등 이런 분들과 강한 경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반딧불이의 고향, 무주
덕유산 상고대

MUJU COUNTY
무주군

무주에 겨울이 왔습니다.

덕유산 깊은 골을 수놓았던 단풍도
굽이쳐 흐르던 물도, 수줍던 초록도 모두
살포시 내려앉은 겨울 앞에서
한자락 추억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오르는 걸음마다
맞잡고 함께 하는 가슴마다
아름다운 겨울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muju**

무주군관광안내 063)324-2114, 322-2905 | 무주덕유산리조트 063)322-9000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2-3174 | 무주반디랜드 063)324-1188 | 덕유산레저바이크텔 063)322-2882